

왜 이재학(理財學)이 아니라 경제학(經濟學)인가?: 이헌창 교수의 정성스러운 탐구*

홍 기 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 들어가며

이재(理財), 치부(致富), 생계(生計), 화식(貨殖), 제가(齊家), 부국(富國), 후생(厚生), 경세(經世), 이 모든 단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 단어들이 모두 한자문화권에서 경제(economy)의 번역어로 제안된 적이 있다는 점이다. 고려대학교의 이헌창 교수는 10여년에 걸쳐 경제와 경제학에 대한 개념사 연구를 수행하여 한자문화권 뿐만 아니라 이슬람문화권, 인도에 걸쳐서 서양의 경제와 경제학이란 개념이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개념 번역에 초점을 맞추어 탐구하였으며, 그 결과를 한 권의 책으로 출간하였다.

이헌창 교수가 경제와 경제학 개념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고려대학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서 경제학과 100년 역사를 조사하던 중 「보성전문학교 시절의 경제학술활동」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보성전문학교에는 경제학과 상학을 가르치는 학과의 명칭을 이재학과라고 정하였으며 이 명칭은 1907년까지 사용되었다. 물론 이 명칭은 일본의 게이오의숙과 전수학교의 명칭을 따라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이재학이 아니라 경제학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한자의 종주국인 중국은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우리 나라는 왜 일본의 번역어에 더 의존하게 되었는지, 이러한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생길 것이다.

관련되는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이헌창 교수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정성껏 답하고 있다. 이 책은 경제와 경제학 개념의 아시아권의 도입사로서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포괄적으로 답하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된다.

* 이헌창 지음, 경제·경제학, 한국개념사총서11, 소화, 2015. 1-519쪽에 대한 서평.

2. 경제적 탐구의 성격변화: 이재에서 경제로, 다시 이재로?

대부분의 경제학 교과서에서 소개되다시피 경제란 개념은 그리스의 크세노폰(Xenophon)이 기원전 4세기 전반에 서술한 <오이코노미코스 Oikonomikos>에서 유래된다. 이 말은 가정을 뜻하는 오이코스(oikos)와 법률 또는 규범을 뜻하는 노모스(nomos)의 합성어로서, 말 뜻대로 번역하자면 오이코노미코스는 ‘가정관리자’가 된다.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의 저술에서는 오이코노미카(oikonomika)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가정관리술’ 혹은 ‘가정학’으로 번역될 수 있다. 당시 자유민의 가계는 몇 명의 노예를 포함하여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규모였으며, 재산을 관리하고 획득하는 기술은 중요한 지식이었다(이현창, 44-45쪽).

이러한 지식은 국가관리에도 필요하므로 기원전 2세기 말 그리스의 철학자 필로데모스(Philodemos)는 군주의 국가관리라는 의미로 politike oikonomia란 말을 사용하였다고 한다(이현창, 48쪽). 이러한 그리스의 단어가 라틴어와 이어서 프랑스어 및 영어로 전해져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경제(economy)란 말로 굳어지게 된다. 아울러 경제 전반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면서 17세기에 이르러서는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란 말이 등장하여 공공행정이나 국가관리의 의미로 사용되게 된다. 이 단어는 최후의 중상주의자라고 불리는 제임스 스튜어트(James Stuart)를 거쳐서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에서 사용됨으로써 완전히 정착하게 된다(이현창 55-56쪽).

그런데, 경제학의 역사를 보면 고전학과 시대와 초기 신고전학과 시대에 널리 쓰이던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이란 말은 1890년대 알프레드 마셜(Alfred Marshall)의 <경제학원리(Principles of Economics)> 발간을 전후하여 경제학(economics)이란 용어로 바뀌게 된다. 이것은 경제학의 전문화(professionalization)과정에서 종래의 도덕철학이나 사회철학의 하나로서 간주되던 경제학 분야가 독립된 학문분야로 정립되었다는 것과 함께 경제학의 성격이 윤리학이나 정치학과는 달리 시장경제의 작동과 관련된 고유한 경제문제를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성격이 강하게 되면서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징표는 1932년 라이오넬 로빈스(Lionell Robbins)가 “경제학은 목적과 대체용도를 가진 희소한 수단 사이의 관계로서 인간행동을 연구하는 과학”이라고 제시한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뚜렷해졌다(이현창, 89쪽).

그렇다면, 경제학은 종래 가정관리학에서 국가관리학으로 나아가다가 다시금 연구영역이나 접근법을 세분화해서 합리적 행동과학으로 성격 변화를 일으킨 셈이다. 이러한 경제학의 추세를 생각하면 경제학이란 용어는 가정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앞에서 소개된 번역어들 중에서는 이재학(理財學)나 제가학(齊家學)이 더 적절한 번역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한자문화권에서 경제학(經濟學)이란 번역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일까? 여기에 대한 답은 개념을 수용하는 당시 지식인들의 시대적 인식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중국, 일본, 한국의 순서로 수용상황을 살펴보자.

3. 동아시아 3국에서의 경제와 경제학의 수용

1) 일본의 경우(제2부의 주요 내용)

동아시아 3국에서 근대화과정에서 서양문물을 가장 빨리 흡수한 나라는 일본이다. 그 이유는 이현창 교수가 책의 말미에서 밝혀놓았듯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때문이다(434-435쪽). 첫째는 일본은 유교도덕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실용적 학문풍토가 있었다는 점, 둘째는 일본은 전통문화의 영향이 크지 않아 서구에 대한 학습에 장애가 없었다는 점, 셋째는 중국에서는 서양문물이 선교사를 통해서 도입되었으나 일본의 경우 서양과 직접 접촉을 통해 도입함으로써 그 충격이 더 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862년 서양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인 번서조소(蕃書調所)에서 편찬한 영일사전에서 political economy를 경제학으로 번역한 바 있고 economy를 ‘집안 일을 하는 것’으로 뜻 풀이를 하였다고 한다(이현창, 121쪽). 그런데 경제를 가정관리에 가깝게 풀이하면서 political economy는 국가관리에 가깝게 번역한 것은 국가정책론적 시각에서 고전학파를 이해하면서 네덜란드어 등에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현창, 124쪽).

특히 일본의 선각자 후쿠자와 유키치는 경제학이 법술이 아니라 경제의 정책을 다루는 ‘일종의 학문’이라고 인식하여, 종래 한자어인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경우 통치술의 하나로 본 것과는 차별적인 인식을 보인 것에 주목할 만하다. 즉 한자문화권에서 중국의 단어를 차용하면서도 학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함의를 변화시켜 서양 학문의 하나로서 받아드리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1870년대에 이르러서는 경제학의 또 다른 번역어로 이재학이 제시되었다. 이재학이란 이름은 1875년 페리(A.L.Perry)의 저서인 <Elements of Political Economy>를 완역하면서 <이재원론>이라고 발행한 사례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몇 가지 책 번역에서 나타났고, 1879년 도쿄 대학의 학과 조직에서 이재학과나 등장한 것에서 발견된다. 1880년대 이후 이재학이 좀 더 사용하게 된 데 대해서 이현창 교수는 일본에도 자유주의적 경제학 사조가 들어오면서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시기 유럽에서는 신고전학파가 성립하는 중이었으나, 일본에서는 고전학과 경제학이 중심을 이루었다. 고전학파의 political economy 개념은 그래도 경제학이라는 한자어에 부분적으로 통하는 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전학과 경제학의 이해가 심화되는 가운데 흥미롭게도 신고전학파의 economics 개념에 어울리는 한자어인 이재학이라는 번역어가 확산되고 있었다. 고전학과 경제학 저서를 번역한 <이재원론>에서는 경제학을 교역과 가격 결정의 이론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러한 정의는 경제보다 이재라는 한자어와 친화성을 가진다.” (이현창, 140쪽)

이 설명은 자유주의적 경제사조가 이재학이라는 번역어와 더 어울린다는 흥미로운 설명이며, 이어지는 설명에서 일본의 국가주의적 경향으로 인해 경제학 용어가 더 보급되었다는 점과 어울어져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다만, 구미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도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보급속도로 볼 때 한계혁명의 진원지인 영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외의 국가에서 신고전학과가 주목을 받은 것은 1890년대 이후였으므로 신고전학과적 경제학 정의가 이재학에 부합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일본의 당시 사정은 신고전학과와의 보급과 관련된 것은 물론 아닐 것이다.

그 근거는 몇 가지 점에서 찾아진다. 우선 이현창 교수도 서술하듯이 고전학과에서도 밀(J.S.Mill) 이후의 저작에는 수요공급설에 기반을 둔 가격이론이 상당히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역사학과나 다른 학과에서도 수요공급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인 경제학의 정의로 이재학에 사용하였다고 해서 이것이 신고전학과적인 것이라고 반드시 볼 필요는 없다. 또한 일본의 경제사상의 흐름을 소개한 책에서도 일본이 신고전학과적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이 1920년대로 서술하고 있다.¹⁾ 물론 이현창 교수가 이재학이란 용어는 신고전학과 경제학 개념의 번역어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책의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독자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어서 첨언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이재학이라는 대안적 용어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궁극적으로 경제학이라는 번역어가 선택된다. 이에 대해서 이현창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일본이 이재학에서 경제학으로 번역어를 다시 바꾼 데에는 영국의 자유주의 경제학보다는 독일의 국가주의 경제학을 선호하게 되었기 때문이며, 그 바탕에는 사회계약적 국가론과 유기체적 국가론 중 후자를 선택하여 국가체계를 설계해 나간 역사적 사실이 놓여 있다.(중략)... 천황제국가가 확립되는 동시에 자유민권운동이 좌절되는 가운데 유기체적 국가론과 역사학과 경제학이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결국 경제학이라는 번역어가 승리를 거두었다.”(이현창, 151쪽)

이현창 교수는 이러한 사조의 변화와 함께 대학 학제에서도 명칭 변화가 일어났음을 적시하고 있다. 즉 도쿄대학의 경우에도 1886년 제국대학령에 해서 새로 설립된 법과대학 정치학과에서 경제학 교육을 맡게 됨에 따라 이재학과라는 명칭은 사라지고 대학은 관리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1908년 정치학과에서 분리된 학과의 경우에도 경제학과라는 명칭이 사용되게 된다. 한편 ‘이재’라는 번역어를 가장 오래 고수한 게이오의숙은 1919년 사립대학으로 인가를 받으면서 이재과를 경제학과로 개칭하게 된다.

1) Tessa Morris-Suzuki, 1989, *A History of Japanese Economic Thought*, p.69.

2) 중국의 경우(제3부의 주요 내용)

일본의 비해 중국의 경우 서양문물 도입의 역사가 길고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중국의 경우 주로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 서양 학문의 도입과 개념의 번역이 이루어졌다. 1847년 미국인 선교사 새뮤얼 브라운(Samuel Robbins Brown)은 미국인 경제학자 존 맥빅카(John McVikar)의 책을 바탕으로 <치부신서(致富新書)>를 간행하여 경제학을 한자문화권에 최초로 소개하였다. 그 뒤를 이어 부국(富國), 치국(治國), 제가(齊家), 절용(節用) 등 유교도덕에 가까운 번역어들도 제시되었다.

1860년 제2차 아편전쟁으로 베이징이 함락당한 후에는 중국 정부도 서양문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외국어와 국제관계를 학습하는 근대적 학교인 동문관(東門館)이 설립되었다. 동문관 부교습(副敎習)인 왕펑자오(汪鳳藻)는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인 헨리 포세트(Henry Fawcett)의 <경제학 안내서 Manual of Political Economy>를 1880년에 <부국책(富國策)>으로 요약 번역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에서도 이재라는 번역어가 사용된 적이 있다는 점이다. 김윤식이 영선사로 임명되어 중국에 체류하는 도중 1882년에 양무과 관료 한 사람이 “자신이 서양인의 이재서를 읽었는데, 그 말의 깊은 근거를 가져서 국가를 다스리는 자가 몰라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고 한다.

이렇듯 본격적인 문호개방 이전에는 중국과 일본의 학문적 역량이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의 도입과 번역에서 격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현창 교수는 사회적 관심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

“일본사회는 중국과 영국의 두 차례에 걸친 전쟁을 목격하고 중국사회보다 강렬한 위기의식을 느꼈다. 사무라이 관료가 문민 관료보다 군사적 충격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였다. 그래서 일본은 개국 후에 양이운동을 전개하다가 현격한 무력의 열세를 자각하고 중국에 앞서 부국강병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런데 중국사회는 청일전쟁 이전까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에 젖어 있어서 문명의 변경의식을 가진 일본과는 달리 서양문명의 충격에 둔감하였다.”(이현창, 173쪽)

청일전쟁 후 중국은 본격적으로 서양문물을 도입하였는데, 경제 외에도 다양한 번역어가 경합되는 양상을 보였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1898년 무술정변을 일으킨 량치차오(梁啟超)는 경제라는 용어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번역어 사용을 시도하였다. 즉 그는 경제학의 직역에 가까운 정술이재학(政術理財學), 경제에 대해서는 평준(平準) 및 생계(生計)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다양한 모색 속에서 량치차오는 자유방임주의에서 보호주의로 바뀌는 세계적 상황 속에서 부국강병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경제라는 번역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귀결에 대해서 이현창 교수는 경제학이란 번역어의 승리를 각국의 사회적 요구와 결부

시켜 설명하고 있다.

“동아시아 세 국가에서 경제학이라는 번역어가 궁극적인 승리를 거둔 데는 신학문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잘 표현한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작용하였다. 일본이 초기에 political economy의 번역어로서 경제학을 사용한 데에는 이 신학문을 통해 경국제세의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동기가 작용한 것처럼, 중국이 처음 부국학이라는 번역어를 주로 사용한 데에도 부국 내지 부국강병을 모도하기 위한 동기가 작용하였다. 그 다음 단계에 일본에서 이재학이라는 번역어가 대두한 것은 신학문의 내용에 더욱 부합하는 용어를 찾으려는 학문적 동기가 작용하였는데, 중국에서 이재학·계학·생계학 등의 번역어가 출현한 것도 마찬가지로 사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가주의 사조는 경제, 개인주의 사조는 이재라는 번역어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일·중·양국에서 나타났는데, 국가 주권을 위협받는 제국주의시대에 국가부강의 추구라는 시대적 과제는 경제라는 번역어의 채택으로 유도하였다고 하겠다.”(이헌창, 188-89쪽)

자유주의적 사조에서는 이재학이, 국가주의적 사조에서는 경제학이 선택적 친화력(selective affinity)를 갖는다는 이헌창 교수의 가설은 당시 시대적 사조로 볼 때 설득력 있는 가설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가설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3) 한국의 경우(제4부의 주요 내용)

동아시아 삼국 중에서 가장 폐쇄적이던 조선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늦게 1876년에 문호를 개방하였다. 개방 이전에도 물론 중국을 통해서 서양문물을 받아들였으나 체계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개방 이후에는 주로 일본을 통해 근대문명을 수용하게 된다. 이 때문인지 경제학에 대한 번역어에 대해서 중국이나 일본처럼 치열한 모색을 하지 않고, 그 대신 일본에서 만든 번역어인 경제학을 신속하게 흡수하여 사용하게 되었다(이헌창, 201쪽).

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은 대체로 개화파에서 나타나서 1888년 박영효가 고종에게 보낸 건의서의 세 번째 항목은 “경제로써 인민 생활과 국가재정을 윤택하게 한다”는 내용이었다(이헌창, 205쪽). 그런데, 이 때 경제는 서양의 political economy와 일치한다기보다는 한자어 ‘경제’와 뜻이 통한다고 볼 수 있으며, 서양의 political economy에 대한 순수한 번역어가 빈번히 사용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렸다고 한다. 예를 들어 유길준의 <서유견문(1887-1889년)>에 나타난 “경제”라는 용어는 한자어 원래의 의미인지 번역어로 사용된 것이 불명확한 상태였다.

조선에서 독자적으로 경제학을 번역한 것은 1884년에 발간된 <한성순보> 제19호에 영국 경제학자 포세트의 책을 <국재론(國財論)>이라고 소개한 기사에서 나타난다. 1896년에 발간된 <독립신문>에서는 경제학이 모두 8번 나오는데, 자원의 효율적 배분원칙을 다룬다는 의미를 소개하고 있어서 경제학이란 학문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한다(이헌창, 213쪽). 1898년에 발간된 <황성신문>에서는 한자어인지 번역어인지 구별이 쉽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으나 전통적 유학

사상의 비판적 계승 위에서 근대학문인 경제학과 그 개념을 수용하려는 태세가 발견된다(이현창, 219쪽).

조선 지식인의 경제 개념의 수용 방식에 대해서 이현창 교수는 자체적인 수용능력과 일본의 간섭이라는 외부 환경이 결합된 결과로 파악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한자어 경제 의미와 번역어 경제 의미가 융합되는 양상은 나타났으나, 일본과 중국의 지식인은 한자어 경제가 영어의 뜻에 맞지 않은 사실에 고뇌하여 그 대안의 번역어를 고안하려 힘썼는데, 조선의 지식인은 그런 고민이 없이 양자를 융합하여 사용하였다. 경제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점이 작용하였을 것이고, 서구의 근대와 유교문화를 융합하는데 능력을 발휘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다.”(이현창, 226쪽)

이렇듯 부족한 상태에서 수용기가 시작되었지만, 20세기 들어와서는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경제학을 상당히 도입하여 보성전문학교의 두 졸업생이 공저하고 유승겸이 교열하여 1908년에 발간된 <최신 경제학>에는 “경제학은 사회상에 존재한 경제적 현상을 강구한 학문이라. 경제적 현상은 우리가 그 욕망을 만족케 하기 위하여 외계의 실물을 획득·이용하는 바를 경제적 동작이라고 하며 이 동작에 기인하는 현상을 경제적 현상이라 함이라”(이현창, 235쪽에서 재인용)라고 정의될 정도로 상당한 이해도를 보이고 있다. 이 책에는 영국 학자 말샬(Marshall을 지칭함)도 인용되어 있으며, 공급이 무한한 자유재와 유한한 경제재를 구분하고 있다.

한편 조선 말기에는 이재학이라는 번역어도 도입되었으며, <독립신문>이나 정부공문, 기타 잡지 등에서 나타나며 생계학이라는 말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의 발전, 이어서 국권의 회복, 그리고 인민생활의 안정과 향성이라는 도덕적 목표를 가진 조선 말과 식민지기 지식인에게 이재학이나 생계학이란 말은 그다지 매력을 주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이현창, 250쪽). 또한 일본을 통해서 편하게 경제학 지식을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구미 서적을 힘들게 번역하면서 한자어 개념을 모색할 필요성이 줄었던 것도 경제학이란 번역어가 자리잡은 이유가 될 것이다(이현창, 252쪽).

4. 한자문화권, 이슬람세계, 인도에서의 경제학 개념의 도입

이현창 교수 책의 제5부는 한자문화권에서 political economy와 economics의 번역어로 등장한 용어들의 원래 의미와 그 진화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이현창 교수는 탁월한 한국 경제사 연구자로서 갖춘 어학적, 문화사적 지식을 잘 활용하여 한·중·일 삼국에서의 경제와 경제학과 관련된 문헌들을 꼼꼼히 소개하고 있다. 한국에 한정시켜서 보더라도 전통적 유학에서부터 실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헌을 소개하고 있어서 이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학문적 기여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본서평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할 역량이 없으므로, 이현창 교수의 결

론적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에덤 스미스의 political economy의 정의에 가까운 한자어는 안민부국, 마셜의 economics의 정의에 가까운 한자어는 이용후생, 그리고 희소한 자원의 합리적 관리라는 로빈스의 정의에 가까운 한자어는 이재였다. 경제학은 전문 과학으로 발전하여 가면서 그 정의가 변하였는데, 중상주의·중농주의학과 정도의 체계를 갖춘 경제학이 성립하지 못한 동아시아에서 이러한 한자어들이 출현한 사실은 흥미롭다. 물론 개념의 형태적 유사성은 있지만, 그 분석적 내용에서는 큰 격차가 있었다.”(이헌창, 307쪽)

이헌창 교수는 책의 제6부에서 다른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얻은 지식과 문헌을 활용하여 이슬람세계에서의 번역어와 인도에서의 번역어의 사용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이 내용은 상당히 흥미롭지만, 본서평자가 가진 지식이 많지 않아 결론적인 내용을 다시 옮기는 것으로 내용 소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중동과 인도는 동아시아보다 유럽과 일찍 폭넓게 접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의 도입이나 번역어의 성립에서 일본보다 늦었다. 그리고 이 지역들에서는 일본과 중국에서처럼 번역어의 치열한 모색도 없었다. 인도의 경우 식민지화 이전 경제담론이 일본 및 중국보다 활발하지 못하였던 데다가 식민지 지배를 통하여 경제학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인도인이 주체적으로 경제학을 흡수하는 데에 지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이헌창, 337쪽)

5. 맺음말을 대신하여

이헌창 교수가 마지막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은 경제학 발달과 학습의 지역 차와 그 결정 요인이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문화사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설명하려는 의욕 넘치는 시도를 담고 있다. 우선 이헌창 교수는 시장경제의 자율적 조정기능이 성립된 경우 윤리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경제 분석의 발전, 나아가 근대경제학의 성립이 탄생된다는 커다란 전제에서 출발한다(이헌창, 346쪽).

이러한 대전제 아래서 자율적 시장기능이 취약했던 고대 시대에서는 각 문화권에 걸쳐서 비교할 때 경제사상이 비교적 대등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지적한다. 다만 이후의 경제사상 또는 경제학의 발전에 있어서 고대 그리스 학문의 개념 틀이 더 많은 영향을 준 이유에 대해서 활발한 문화적 교류라는 일반적 특성 외에 그리스인들의 탁월한 분석적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헌창 교수에 따르면 그리스 지식인들은 논리학체계 위에서 이론적 지식으로서 에피스테메를 확립하여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유방식을 만들어냈다고 한다. 즉 논리와 합리적 사유는 수준 높은 전근대문명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났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수준 높은 논리학과 엄격한 형식의 삼단논법을 자생적으로 성립시킨 문명권은 그리스 문명권외에 달리 없으며 근대학문을 창출하는데 이바

지했다고 본다(이헌창, 365쪽).

아울러 그리스 문화는 자유로운 탐구 정신을 통해서 지식의 추구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인간 계·자연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이헌창, 369쪽). 이러한 탐구는 개인이 소유하는 사경제이자 국가존립의 기본 요소인 가정에 대해서 적용되어 경제 분석의 싹이 틀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이헌창, 385쪽). 이러한 지적 자산 위에서 유럽에서는 정치적·사회적 다원성을 인정하는 풍토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전통이 성립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점은 아시아의 정치체제나 문화와 대비된다고 말한다(이헌창, 417쪽).

말하자면, 시장경제의 발달과 더불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문화적 다원성과 과학적 사고가 결합하여 유럽 지역에서 경제학이 앞서서 발달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럽의 앞선 학문적 충격에 대해서 비유럽권의 반응은 각각 달랐는데, 상대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그 중에서도 일본에서 빠른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우선 동아시아 지역의 한자문화권의 문화적 역량이 높았는데,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실용적 풍토가 강했던 일본에서 경제학 지식이 빠르게 흡수된 것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양학문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에도 일본의 다자이 순다이(大宰春臺)가 1729년에 발간한 책을 보면 의사에 처방에 비유하는 경제의 술(術)을 추구하는 것을 들 수 있다(이헌창, 430쪽).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후일에 유럽 학문을 배우는 자세에도 차이를 일으켜 유교도덕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한 중국이나 조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일본에서는 서양학문의 수용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동아시아 삼국의 차이 비교는 유럽에서의 경제학 발흥과 동일한 요인으로 설명되는데 “사상이 다원적으로 전개되고 선진문명을 개방적으로 학습하는 문화”(이헌창, 449쪽)라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의 분석하는 범위에서는 다소 벗어나지만 학문의 발흥과 수용이라는 문화교류의 측면과 함께 근대 경제 성립 이후의 경제학의 발달을 고려하면 일본의 빠른 유럽 문화 수용에도 불구하고 결국 군국주의화하여 자유민권운동이 크게 위축된 점을 보면 일본의 한계도 지적될 수 있으나, 이것은 수용사 이후의 과제인 발달사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이헌창 교수의 경제와 경제학에 대한 개념사는 사실 개념의 성립과 변화, 그리고 다른 문화권에서의 번역을 통한 수용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넘어서서 지식과 문명의 교류사라는 측면까지 훌륭한 시사를 주는 책이다. 이 책은 서양 학문인 경제학을 수용하면서 한국 고유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분석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많은 한국 경제학도들에게 권하고 싶으며, 우리나라의 개념사 연구에 있어서도 모범적인 연구라고 평가될 수 있다.